17일 Market Index
코스피 3413.40 (-36.22)
코스닥 845.53 (-6.31)
금리(국고채 3년) 2.418 (+0.001)
환율(원·달러) 1380.9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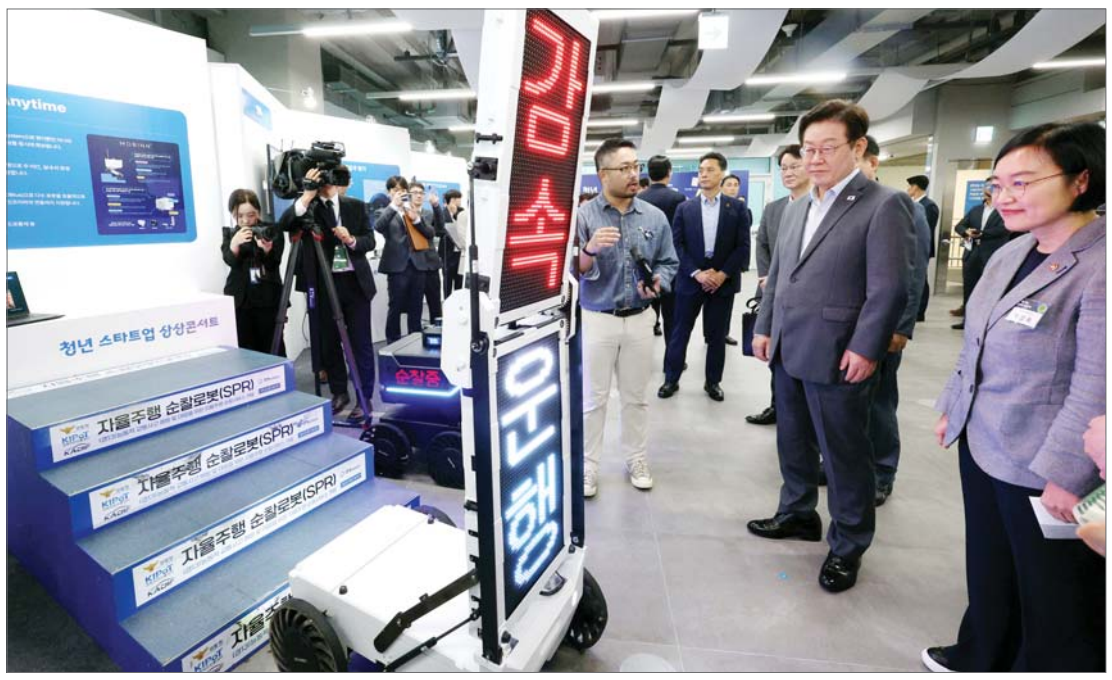
metro® 경제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 땡겨요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자동차 사고 20%는 '고령 운전자' '보험·기술·면허'로 정밀관리 시급

전체 교통사고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
사고 63% 줄일 수 있어
보험 연령구간 세분화 필요



순찰 로봇 관람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자율주행 순찰 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뉴시스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도로의 연령 구조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 운전자 모수 확대 속에 65세 이상 사고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기술·면허·보험'을 묶은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운전자의 연령도 함께 높아졌다. 지난 2023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13.8%로 2019년 대비 3.6%포인트(p) 늘었다. 65세 미만의 사고 건수는 20만1000건에서 15만6000건으로 감소했지만 65세 이상은 6000건에서 4만건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전체 사고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3%에서 2023년 20.2%로 커졌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2005년 13.2명에서 2023년 4.9명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량의 위험은 줄었지만 위험의 '연령 편향'이 뚜렷해졌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의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연령 편향의 원인으로 연령과 함께 따라오는 기능 저하와 운전 행태가 꼽힌다. 시야·주의력·반응속도 저하는 노화의 일반적 현상으로 브레이크·엑셀 페달 오조작 위험도 연령 상승과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평균 연령대가 61~67세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80~90%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정됐다. 페달 오인 사고는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허·기술·보험'을 묶은 정밀 관리를 제안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꼽힌다. 국제 기준기관 추정으로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만으로도 관련 사고를 최대 63%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신차 의무화의 사각지대인 기존 차량 보급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면허 관리 체계의 재정렬도 핵심 과제다. 현재 국내는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주기의 갱신·적성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70세를 기점으로 갱신 주기를 1~3년으로 단축했고 고령 구간일수록 평가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간다.

특히 보험은 제도·기술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유인장치로 제시됐다.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모든 운전자가 가입하는 의무상품인 만큼 요율 체계가 안전행태를 촉발하는 정책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령운전자 비중 확대에 따라 고령층 내부에서도 위험도가 크게 다르므로 자동차보험의 연령 구간을 더 세분화해 정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안전장치 할인 항목을 현행 자동제동장치(AEB) 중심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까지 넓히면 예방 투자에 대한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위험운전자 식별을 위한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 요율에 반영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지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중소 제약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의 도전기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행사명 : 2025 물류&모빌리티 포럼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기아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코스피 선봉' 반도체 투톱, 내년 고성장 전망

삼전 12%, 하이닉스 24%↑
거품론 완화… 목표가 줄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랠리를 이끌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반도체 주가 상승 흐름의 큰 축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중순에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지만 최근 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와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도 투자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12.19% 급등했다. 현재 주가는 7만8200원이다. SK하이닉스는 같은기간 23.98% 뛰었다.

반도체 업종 주가 랠리의 큰 축은 'AI 거품론'이 수그러든 탓이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주가가 10일(현지 시간) 33년 만에 최대치인 35.95% 폭등한 것이 대표적인 시그널이었다. AI 덕분에 오라클의 클라우드 수요가 급증해 주가에 영향을 줬다. 그러자 국내 AI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주의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 보고서를 낸 9곳 중 6곳이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8곳 중 4곳이 눈높이를 올렸다. 특히 SK증권은 이날 각각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6년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강 체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싼 AI 주식은 한국 반도체 업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11만원, 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026년 고성장을 전망했다.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9% 상승한 55조원을 추정했으며, 특히 메모리 영업이익이 80% 급증한 36조원을 기록하면서 최대 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 역시 43% 성장한 56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메모리 가격 상승 폭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감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단기 급등으로 인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메모리 업체들의 비중확대 전략을 추천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에 외국인들도 몰려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6조7000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의 수급은 대부분 삼성전자(3조997억원)와 SK하이닉스(2조5551억원)에 쏠렸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위성락 "관세협상 타결점 찾을 것… 北비핵화 어렵지만 접근 가능" /사진 뉴시스
▲구윤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기관·시장 의견 듣고 판단"
▲국민의힘 "검찰청 폐지는 李정권 몰락의 단초 될 것"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美아그레망 절차 완료… 곧 부임
▲김정관 "신규 원전 2기·SMR 건설해야… 3500억불 투자 美 다 안가져가"
▲與 "국힘,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 협력의 길로 돌아와야"